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교과서 로마자 표기 실태 분석 및 제안: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심으로* **

양병선 · 추승희

(전주대)

Yang, Byungsun & Choo, Seunghee. (2016). An Analysis and Suggestion of English Romanization for English Textbooks according to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the Fir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3), 87-108. On September 23, 2015,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new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This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ill take effect on March 1,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i) to study how to write English Romanization for Korean culture-related terms such as proper names, landmarks and geographical locations, foods, etc, ii) to analyze English Romanization of Korean culture-related terms from 14 different fir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which are currently used, and iii) to suggest how to write English Romanization for new English textbooks which will be published after 2018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주제어(Key Words): 2015 개정교육과정(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로마자표기 (Romanization),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한국문화(Korean Culture)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전주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7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2015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와 2015년 11월28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2015 한국현대언어학회·충남대학교 북미주연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양병선·추승희 2015, 추승희 2015)을 수정·보완한 것임. 학술대회에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 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 3분께 감사를 드린다.

1. 서론

교육부는 2015. 9. 23.(수) 현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로 확정·발표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에 따라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를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검정·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7년 3월 초1~2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에 적용되며, 2019년 3월 초5~6학년, 중2학년, 고2학년에 적용된다. 2020년 3월 중3학년, 고3학년까지 적용하면 초, 중, 고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성취기준 선별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어휘와 언어형식을 학교급별로 구분 제시하여 학생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과 언어 이해, 습득,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문화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및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께 기르고,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유도하였다. 또한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언어재료는 타 문화 이해 및 우리 문화 소개와 친숙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제이다(교육부 2015 별책 14: 3-6). 따라서 새로운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우리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국문화의 영어표기에 관한 연구와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다양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이재근 2015, 임찬빈 2015a, b, 홍원표 2016, 한혜정 2015)가 제시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영어과 교육과정」(임찬빈 2015b: §3)에서도 교과서 개발방향에 대한 준수사항, 교과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교과서 내용 구성의 방향에 대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한국문화와 관련된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에 관한 규정 및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할 새로운 영어교재에서도 한국문화에 관한 로마자 및 영문표기가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¹⁾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로마자 및 영문표기에 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재는 통일된 한국문화 로마자 및 영문표기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할 시점이다.

1)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5종의 로마자표기 양상을 연구한 정경일(2002, 2012)과 초등학교 교과서의 인명표기를 연구한 김혜숙(2002)에 따르면, 인명이나 지명, 문화제명의 표기는 교과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새 영어교과서에서 행정구역명, 인명, 도로명, 한식명, 문화재명 등 한국문화 영문표기와 관련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하 「표기법」)과 영문표기관련 규칙 및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ii) 현행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 관련규칙에 따라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4종의 한국문화관련 용어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 실태를 분석하며, iii)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영어교과서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한국문화 관련 용어 등의 영문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현행 「표기법」 및 지명, 한식명, 도로명, 관광지명, 문화재명 등에 관련된 영문표기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현행 1학년 영어교과서 14종에 나타난 인명, 행정구역명, 관광명소, 음식명 등 한국문화 관련 용어의 표기 사례 실태 및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 새 영어교과서의 표기방안을 제시 하도록 하며, 4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영어교과서의 한국문화 관련 용어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와 영어교육에 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에 가름 한다.

2. 영어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적용 영문표기 관련 규정

2.1.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i)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ii) 미래 사회 핵심 역량 중 영어과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iii)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 이해 등 인문소양 함양을 고려한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iv)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제 구조화와 어휘 적정화 및 언어형식의 학교급별 수준 제시를 통하여 수업 적정화를 이루고, v) 학생 중심 수업 및 참여·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영어 교과서의 핵심 역량을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구분하였다(임찬빈 2015b: 10). 학교급별 성격에서는 초등학교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 설정하여,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본 영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교과로 규정하였다(임찬빈 2015b: 10).

또한, 영어교과서 개발 방향은 i)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며, ii)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 등이 소재 및 문화 관련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고, iii)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고, iv)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교과서는 핵심 성취기준 선별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어휘와 언어형식을 학교급 별로 구분 제시하여 학생 눈높이를 고려한 영어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특히 중학교 영어교재는 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및 글로벌 시민 의식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임찬빈 2015b: 22-25).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명, 지명, 행정구역명, 관광명소, 음식명 등 우리 문화와 관련된 용어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가 통일된 표기로 집필되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용어가 각기 다르게 표기된다면(정경일 2002, 2012; 김혜숙 2002 참조) 학생들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표기법」 및 교과서 적용 영문표기 관련 규정

인명, 지명, 한식명, 도로명주소, 도로표지판, 관광지 및 유적지 등 한국문화 관련 용어의 영문표기 시 지명의 음소로마자표기는 2000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공포되었으며, 2014년 일부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인 현행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따라서 교과서, 도로표지판, 기차역, 전철역, 관광지 안내판, 정부간행물, 국내발행 영문지도 등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관장하는 지명 등의 로마자표기³⁾는 현행 「표기법」에 따라 대부분 적고 있다(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2010: §5.2.2, §5.2.3). 하지만 영문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기관에 따라 각자의 번역지침을 정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여왔다⁴⁾. 따라서 도로·관광 표지판이나 지도, 영어교과서의 영문 번역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다양각색으로 표기되어 오고 있었다(정경일 2002, 2012, 김혜숙 2002, 양병선 준비 중). 예를 들면, 자연지명인 북한산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영문도로표지판에는 Bukhansan(Mt), 국토정보지리원의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에 의하면 Bukhansan(mountain), 문화재청의 「문화재 영문표기 기준규칙」과 한국관광공사 「영어 표기지침」에 의하면 Bukhansan Mountain, 서울시 「외국어 표기기준」에 의하면 Bukhansan(Mountain) 으로 표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15년 6월 17

2)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2011: §5.2), 그리고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2011: 6장, 7장) 참조.

3) 「로마자표기」와 「영문표기」에 대한 차이점은 양병선(2011: 제3장) 참조.

4) 영어번역표기에 대한 기관별 기준 및 규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준비 중) 참조.

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도로·관광 안내표지판, 지도 등에 사용되는 지명, 문화재명 등 우리말 명칭에 대해 통일된 영문 번역표기인 「도로·관광 안내용어 번역 통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통일안」을 수정·보완하여 2015년 12월 29일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하 「표기지침」)을 문체부 훈령 제279호로 제정·시행하고 있다(양병선 준비 중). 「표기지침」은 영어번역 및 표기에 관한 정부 최초의 통일지침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도 이 「표기지침」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교과서 표기 내용과 관련 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2.1. 인명, 정거장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과 관련된 규정

「표기 지침」 제2장 기본 지침 제4조(일반 원칙) 1항은 ‘우리말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세부 지침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1항은 ‘행정자치부의 「새 주소(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예: 세종대로 Sejong-daero 누리로 Nuri-ro 서간도길 Seogando-gil. 다만,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행정 구역은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하철·기차 역명과 버스 정류장의 정거장명의 표기는 제3장 제9조(정거장명)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거장명의 표기는 이 규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도로명은 행정자치부의 「새 주소(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고, 행정구역명은 현행 「표기법」 제3장 제5, 6항에 의해 표기하여야 한다.

인명표기는 「표기법」 제3장 제4항에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고, 이름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인명의 표기순서는 이 규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제3장 제4항 (2)) 하였다. 하지만 「표기법」이 공포된 지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⁵⁾ 이와 더불어 인명, 회사명, 단체명은 로마자표기법의 원칙 이외에 기존에 쓰던 방식을 허용(제3장 제7항)하고 있다. 따라서 성을 포함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의 영문표기는 기존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2.2.2. 자연지명, 인공지명에 관련된 규정⁶⁾

「표기 지침」은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산이나 강, 호

5) 성씨의 표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 및 제안은 양병선(2002, 2009, 2010, 2011, 2014) 참조.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용례사전」(국립국어원 2000)에 자연지명, 교통관련지명, 명소, 문화재, 일반용어, 역사지명 등에 대한 용례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표기 지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수, 고개 등과 같은 자연지명은 제3장 제5조(자연지명)에 의해, 우리말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표기하여야 한다(예: 한강 Hangang River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용담폭포 Yongdampokpo Falls 한계령 Hangyeryeong Pass)⁷⁾. 반면, 건물, 항만, 공원 등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공지명의 경우 제3장 제6조에 따라 전부 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예: 광장시장 Gwangjang Market). 다만, 후부 요소가 ‘○○교(橋)’, ‘○○대교(大橋)’인 경우에는 우리말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여(예: 경천교 Gyeongcheongyo Bridge)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자연지명과 인공지명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2.2.3. 문화재명칭 표기

「표기지침」 제3장 제7조에 따르면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이하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 승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따라서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건조물, 유적, 명승 문화재명칭(제3장 제7조)을 비롯한 서적 및 회화문화재(제8조), 무형문화재(제9조), 동물 및 식물 문화재(제10조) 등 모든 문화재와 관련된 명칭은 「기준 규칙」⁸⁾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에 따르면, 제7조(건조물, 유적 및 명승 문화재)는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괄호 없이 덧붙인다(예: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한라산 Hallasan Mountain, 검룡소 Geomnyongso Spring). 제8조(서적 및 회화 문화재)는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인 경우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예: 삼국유사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⁹⁾. 제9조(무형 문화재)는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예: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봉산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제10조(동물 및 식물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7)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6.28.)에 따라 ‘Dokdo’로 표기한다. 한편, 자연 지명을 도로 표지판, 지도 등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표기할 경우에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로 대체할 수 있다(예: 설악산 Seoraksan / Seoraksan Mtn.).

8) 「기준 규칙」은 2013년 7월 26일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제정되었고, 이를 일부 개정하여 2014년 10월 17일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9) ②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

name)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예: 장수하늘소 Longhorned Beetle (*Callipogon relictus*)).

2.2.4. 한식명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

한식명은 로마자표기용례사전(국립국어원 2000: 265)에 일부 명시되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재단에서 2009년 10월 4개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합본으로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International Korean Menu Guide)를 처음으로 제작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총 154개의 한식메뉴 대표 품목을 지정하여 증보·개정판을 제작하여 식품정보포털(www.foodinkorea.co.kr)에 e-book 형태로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국립국어원의 주도로 한국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재단이 함께 2014년 10월 [200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200 International Korean Menu Guide(이하 「길라잡이」)를 개정 출간하여 통합된 한식명의 영문표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한식명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는 「길라잡이」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길라잡이」에 따르면, 음식의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음식범주(예: 밥, 죽, 면, 국, 탕, 찌개 등 20개 음식범주)에 해당하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필요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예: Japgokbap → Japgok-bap, Jeonbokjuk → Jeonbok-juk, kalguksu → Kal-guksu, Jajjuk, Tteokguk, Yukgaejang 등). 그리고 한식당 메뉴판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한글명, 로마자 표기, 메뉴설명 등에 대해 표준화 작업(예: 돌솥비빔밥: 로마표기명 Dolsot-bibimbap / 영문 Hot Stone Pot Bibimbap / 일문 石焼きビビンバ / 중문 石鍋拌飯)을 하였다. 다만, Gimbap, Kimchi, Bibimbap, Bulgogi 등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의미역이 불필요한 음식명이며, Deodeok, Omija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름이기 때문에 「길라잡이」에서도 의미역 없이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교과서에서도 영어번역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⁰⁾.

3.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로마자 및 영문표기 실태분석

3.1. 자료의 성격

현행 2009 교육과정에 의해 2013년부터 사용된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민간부문에서 개발

10) 이외에도 정부조직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의 영어 명칭 및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2015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에 의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2015)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고 시도교육청의 인정 승인을 받은 인정교과서이다. 그 내용과 수준은 물론 표현 및 표기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따라 집필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문화와 관련된 용어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요구받는 표기이기 때문에 2장에서 언급한 영문표기 규정을 따라서 표기하여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4종에¹¹⁾ 사용되고 있는 한국문화관련 로마자 및 영문표기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 집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외국인과 우리문화에 관련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통일된 한국문화관련 용어 표기를 사용하여 잘못된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만약에 교과서의 표기가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해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저하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3.2 분석의 실제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 로마자표기, 인명, 행정구역명, 자연지명, 관광명소, 음식명, 문화재 관련 명사 순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 실태를 분석하고 새 영어교과서의 표기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한다.¹²⁾

3.2.1. 로마자표기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문화 용어의 로마자표기는 지명을 포함하여 모두 현행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인명, 지명, 음식명, 놀이이름, 악기명 등의 로마자표기는 14종 교과서에 두루 나타난다. 이들 중 인명을 제외한 로마자표기의 음소표기는 현행 「표기법」의 음소표기 원칙에 따라 대부분 적고 있다.

다만, 김성곤에서 ‘남대문 시장(Namdaemun Market)’을 ‘Namdaemoon Market’으로 표기한 것은 현행 「표기법」 음소표기 원칙에 어긋난다. 김치의 로마자표기는 Kimchi(김성곤)와 Gimchi(권오량, 김진원, 박준원, 이병민), 태권도의 경우는 Taekwondo(김임득, 김

11) 14종 교과서의 대표저자와 출판사명은 다음과 같다. 권오량(교학사), 김성곤(동아), 김임득(능률), 김진원(천재), 김충배(능률), 민찬규(금성), 박준원(YBM), 배두본(미래엔), 신정현(YBM), 양현권(지학사), 이병민(동아), 이석재(비상), 이재영(천재), 정사열(천재)이며, 이후 각 교과서는 대표저자명으로 칭한다.

12) 이에 대한 기존연구는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5종의 로마자표기 양상을 연구한 정경일(2002, 2012)이 있다. 하지만 정경일(2002, 2012)은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하면서 2000년 당시에 개정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2000년에 발간된 「국어의 로마자표기 용례사전」(국립국어원 2000)에 따라 영어교과서를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자료로는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교과서 분석의 순서는 정경일(2002, 2012)에서 분석한 순서에 따라 분석하도록 한다.

진완, 배두본, 이석재, 이재영)와 Taegwondo(민찬규, 박준원)로 달리 표기되고 있다. 현행 「표기법」 음소표기 규정만을 본다면 Gimchi와 Taegwondo가 음소표기 규정에 따른 표기이지만, 이미 알려진 Kimchi와 Taekwondo를 표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3.2.6.1, §3.2.7.5 참조). 따라서 이들은 Kimchi와 Taekwondo로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2.2 인명의 표기

3.2.2.1 성의 표기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는 총 15가지 성이 표기되고 있는데 강 Kang 김 Gim/Kim, 권 Gwon, 박 Park, 백 Baek/Paik 송 Song 신 Sin 이 Lee 임 Lim 장 Jang 정 Jeong 조 Jo 최 Choi/Choe 윤 Yoon/Yun 한 Han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중 김, 백, 최, 윤 4개의 성씨는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고 있다.

성의 표기는 「표기법」의 음소규정과 달리 표기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15개 성씨 중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성씨는 권 Gwon 송 Song 신 Sin 장 Jang 정 Jeong 조 Jo 한 Han 정도이다. 강 Kang 박 Park 이 Lee 임 Lim은 이미 관행으로 널리 사용되는 성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¹³⁾ ‘김’의 경우 9종 교과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Kim’으로 표기했고, 이재영 1종에서만 현행 「표기법」 음소규정에 따라 ‘Gim’으로 표기하였다. ‘최’는 3종(박준언, 신정현, 이재영)에 쓰였는데 박준언 1종에서만 음소규정과 일치하는 ‘Choe’로 표기하였다. ‘윤’은 정사열, 김충배 2종에서 사용되었는데, 정사열에서는 음소규정에 일치하는 ‘Yun’으로, 김충배에서는 ‘Yoon’으로 표기하고 있다. ‘백’의 경우 배두본에서는 ‘Baek’으로 표기한 반면에 故백남준 씨를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 김임득, 민찬규에서는 ‘Paik’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인물의 실제 성명 표기방식을 그대로 따른 표기로 보인다. 하지만 §2.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제3장 제4항 (2))고 되어있으며 기존의 표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¹⁴⁾

3.2.2.2. 이름의 표기

이름표기는 현행 「표기법」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예: Bongsu, Dojin, Donghun, Hajun, Hana, Hojin, Jihun, Jisu, Junsu, Mina, Minjun, Somi, Sora). 다만 배두본 등

13) 양병선(2014)에 의하면 성씨 당 평균 이(異) 표기는 17.54개이다.

14) 하지만 이처럼 같은 성씨가 다양하게 표기된다면 학습자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하루 빨리 성씨로마자표기에 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제안은 양병선 2002, 2009, 2010, 2011, 2014 참조).

에서는 민희 Minhee, 상희 Sanghee에서와 같이 ‘희’의 음소표기는 음소규정 ‘hui’를 따르지 않고 ‘hee’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표기법」의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인정하는 규정(제3장 제7항)에 의거해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기 방식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배두본에서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Yuna’라고 적고 있으며, 김임득에서 ‘백남준’의 ‘준’ 표기를 ‘June’이라고 적고 있는 것도, 실제 사용에 따른 표기를 따른 예이다. 이처럼 저명인사의 이름인 경우,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름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표기법」의 음소표기원칙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임을 교과서의 표기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새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2.2.3. 성명의 표기 순서 및 방식

성명의 표기방식은 총 12종의 교과서에 나타나는데 그 중 11종의 교과서가 「표기법」 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 성과 이름의 순서의 경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김미나’를 ‘Kim Mina’ 형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영어식 이름표기 순서인, 이름과 성의 순서, ‘Mina Kim’ 형식은 김충배 1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개정될 교과서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두본에서는 ‘김연아’ 선수 이름의 경우에만 ‘Yuna Kim’으로, 이름과 성의 순서로 인명 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일 교과서 내에 사용된 다른 인명의 표기 방식과는 다른 표기 방식인 점으로 보아, 유명인의 이름인 경우 이미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름 표기의 경우, 김임득에서 예술가 백남준의 성명표기를 현실표기를 반영하여 ‘Paik Nam June’으로, 이름의 음절 사이를 띄어 표기한 예를 제외하고는, 14종 교과서에서 모두 이름을 붙여 표기했고, 이름 음절사이의 붙임표 사용은 하지 않았다. 즉, 14종 교과서는 이름 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¹⁵⁾.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한국인의 성과 이름표기도 이 원칙에 따라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3.2.3. 행정구역명 표기

교과서에 나온 행정구역명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도’: Gangwon-do(김임득, 신정현, 양현권), Gyeongsangnam-do(민찬규), Jeju-do(김성곤, 배두본, 신정현, 이병민, 이재영); (2) ‘시’: Boryeong(김충배), Busan(김성곤, 김임득, 김진완, 김충배, 민찬규, 박준언, 배두

15) 따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던 ‘Mi-na’식의 표기 유형 대신, 원칙대로 ‘Mina’식으로 표기하는 유형의 통일된 양상은 학습자들의 인명표기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때문에 새 교과서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본, 신정현, 양현권, 이병민, 정사열, Daegu(김진완, 배두분, 이석재), Daejeon(김임득, 민찬규, 신정현), Gapyeong(신정현), Gwacheon(이재영), Gwangju(김진완), Gyeongju(권오량, 신정현, 양현권, 이병민), Incheon(김충배), Jeju(이병민), Jeonju(신정현, 이병민), Pyeongyang(김성곤), Seoul(권오량, 김성곤, 김임득, 김진완, 김충배, 민찬규, 신정현, 양현권, 이병민, 이석재, 이재영, 정사열), Suwon(김진완), Tongyeong-si(민찬규), Ulsan(김진완), Yongin(민찬규); (3) ‘군’: Namhae(김충배), Pyeongchang(배두분, 이병민, 김임득); (4) ‘동’: Duam-dong(이석재), Dosun-dong(양현권), Hyeon-dong(정사열), Insa-dong(김임득, 배두분), Jamsil-dong(이석재), Myeong-dong(김임득, 배두분), Namsan-dong(이석재), Nosan-dong(양현권)

이들 행정구역명의 표기 기준은 §2.2.1에서 밝힌 바대로 현행 「표기법」이다. 행정구역명 로마자표기는 「표기법」을 모두 준수하였다. 특히 현행 「표기법」 이전에 사용되었던 ‘부산’의 ‘Pusan’ 표기는 한 군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의 앞에 붙임표(-)를 넣으며,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제3장 5항)에 따라, ‘Tongyeong-si’(민찬규)의 표기를 제외한 각 시의 행정 구역 단위 ‘-si’ 표기는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붙임표 사용 규정도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원칙과 다른 표기가 있다. 이병민에서 ‘인사동’을 ‘Insa-dong’이 아닌 ‘Insadong’으로, 권오량에서는 ‘명동’을 ‘Myeongdong’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 구역 단위 ‘동’의 표기 앞에 붙임표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 표기이다. 단,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관광지명으로서의 인사동, 명동을 의미한다면 오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새 교과서도 이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3.2.4. 자연지물명

3.2.4.1. 산 이름 표기

산 이름은 10종 교과서에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Mt. Halla 방식: 5종(김성곤, 민찬규, 이병민, 이석재, 이재영) (2) Hallasan 방식: 5종(권오량, 김충배, 박준언, 배두분, 신정현)¹⁶⁾. (1)의 표기는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2)의 표기방식은 「표기법」의 제3장 제6항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표기법」에서 자연지물명에 대한 표기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관광표지판이나 지도의 영문 번역표기가 통일되지 않고 각기 다르게 표기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를 반영하듯 현행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산 이

16) 자연지명을 포함하여 문화제명 등을 영문 표기하는 방법은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Halla-san, Halla San, HallaSan, Hallasan Mountain, Hallasan(Mountain), Hallasan(mountain), Hallasan Mt., Mt. Hallasan, Halla Mountain(양병선 준비 중)

름의 표기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에서 언급했듯이 「표기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지명인 ‘한라산’은 (1)이나 (2)와 같은 표기 방식이 아니라, 우리말 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에 후부요소의 의미역을 더하고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Hallasan Mountain’ 방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에서는 현재의 일관성 없는 표기방식 대신에 「표기 지침」에 따라 ‘Hallasan Mountain’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2.4.2. 섬 이름 표기

섬 이름은 11종 교과서에 나타나며 그 표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Jeju-do 방식: 2종(권오량, 김충배), (2) Jeju-do 방식: 8종(김성곤, 민찬규, 배두분, 신정현, 양현권, 이병민, 이재영, 정사열), (3) Jeju Island 방식: 1종(이석재). 붙임표(-) 사용에 관해 보면, 자연지물명인 섬 이름의 경우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표기법」(제3장 제6항)에 따른 표기방식이다¹⁷⁾. 또한 「표기 지침」에서도 자연 지명의 경우 붙임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섬 이름의 표기로서 7종에서 사용된 (2)의 표기방식은 붙임표사용 원칙에서 일단 어긋난다. 또한 민찬규에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소매물도(Somaemul-do)’나 ‘등대도(Deungdae-do)’같이 기타 섬 이름을 표기할 때도 붙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지물명인 섬 이름 표기로는 잘못된 표기이다.

현행 교과서에서 사용된 (1), (2), (3) 표기방식은 모두 「표기 지침」에서 제시한 자연지명 표기 방식인 전체 로마자표기 + 후부 요소의 의미역표기 방식인 ‘Jeju Island’와는 일치하지 않는 표기법이다.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에서는 반드시 「표기 지침」 따라 Jeju Island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2.4.3. 폭포 이름 및 기타 자연지물명

폭포 이름은 김충배 1종에 사용되었는데, ‘천지연폭포’를 ‘Cheonjiyeon Waterfall’로 표기하고 있다. 이 표기는 우리말 전부(前部)만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 표기 방식이다. 그러나 §2.2에서 제시하였듯이, ‘천지연폭포’는 자연 발생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에 해당하므로 현재 「표기 지침」에서 제시한 자연지명 표기 방식대로 표기해야 한다. 즉, 전체 로마자표기 + 후부 요소의 의미역 제시 방식인 ‘Cheonjiyeonpokpo Falls’로 표기하여야 한다. 기타 자연지물명으로는 외돌개 Oedolgae, 쇠소깍 Soesokkak, 검은여

17) 단, ‘-도’를 섬을 지칭하는 ‘도(島)’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인 ‘도(道)’로 보았을 때는 붙임표를 사용한 (2)의 표기가 「표기법」 원칙에 따른 표기이다(§3.2.3참조)

Geomeunyeo 등이 있으며 「표기법」에 따라 음소표기는 잘 되어 있다. 다만, ‘외돌개’는 그 명칭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의미역을 제시하는 ‘Oedolgae Rock’으로, ‘쇠소깍’은 ‘Soesokkak Estuary’으로, ‘검은여’는 ‘Geomeunyeo Coast’로 표기하여야 「표기 지침」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른 표기가 될 것이다. 다만,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¹⁸⁾ 경우에 따라 속성 번역의 생략 여부는 추후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5. 관광명소

3.2.5.1. 해수욕장 이름표기

해수욕장 명칭은 3종 교과서에 세 개의 예가 있다: Hado Beach(이재영), Haeundae Beach(민찬규), Haeundae beach(김임득). 이는 전부(前部)인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에 후부(後部)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 표기 방식으로, §2.2.2에서 언급한 「표기 지침」 제3장 제6조(인공지명)에 관한 표기 규정에 부합하는 표기방식이다. 다만, 후부요소인 의미역의 첫 글자를 이재영과 민찬규에서는 대문자로 적고 있는데 반해, 김임득에서는 소문자로 표기하여 교과서 간에 다른 표기 형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후부요소인 의미역의 첫 글자는 인공지명도 자연지명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표기 지침」에 따른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추후 개정교과서에서는 인공지명에 해당하는 해수욕장 명칭을 규정에 맞게 ‘Haeundae Beach’ 형태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2.5.2. 인공지명 및 기타 관광명소 표기

관광명소 중 인공지명 및 기타 관광명소 표기의 몇몇 예는 다음과 같다: (1) Bukchon Hanok Village, Dongdaemun Market(이병민), Jeonju Hanok Village(신정현, 이석재), Namdaemoon Market(김성곤), Namsan Hanok Village(이재영); (2) Bomok pogu, Gukgungjang(김충배); (3) Ollegil(권오량)/Ollegil(민찬규)/Jeju Olle Trail(김충배).

(1)은 인공지명으로 분류되는 명소들 중에서, 지명 및 고유명사 부분인 전부(前部)는 로마자표기를 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의미역으로 표기한 경우이다. 이 표기법은 「표기 지침」

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는 초등학교 3~4학년은 240 낱말 내외, 5~6학년은 260 낱말 내외(누계: 500 낱말), 중학교 1~3학년은 750 낱말 내외(총계: 1,250 낱말), 고등학교 공통과목은 550 낱말 내외(총계: 1,800 낱말 내외),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전문 교과 I 은 어휘 수는 3500 낱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5% 범위 이내에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임찬빈 2015: 254).

제3장 제6조 (인공지명) 표기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1)의 표기의 예들은 개정될 교과서의 표기방식으로도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2)의 ‘보목 포구’나 ‘국궁장’도 인공지명에 해당하므로 그 표기 기준은 (1)의 표기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즉, ‘Bomok Harbor’, ‘Gukgung Range’로 표기하는 것이 현재 규정에 맞는 표기인 것이다. 한편 (3) ‘올레길’의 경우는 자연 발생적인 자연지형물에 속하는 관광명소이므로, 자연지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따라 (3)과 같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올레길’의 표기를 「표기 지침」 제3장 제5조 (자연지명)의 표기 원칙에 맞게 ‘Ollegil Trail’로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3.2.6. 음식명 표기

3.2.6.1. 음식명의 음소 로마자표기

음식명은 13종 교과서에서 사용되었고, 아래 <표 1>은 13종 교과서에 나온 음식명의 로마자표기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식명 표기실태

음식명	로마자표기	음식명	로마자표기	음식명	로마자표기
감자떡	<i>gamjatteok</i>	떡국	<i>tteokguk</i>	인절미	<i>Injeolmi / injeolmi</i>
갈비찜	<i>galbijjim</i>	떡볶이	<i>tteokbokki</i>	유과	<i>yugwa</i>
경주빵	<i>Gyeongju Bread</i>	백설기	<i>Baekseolgi</i>	유자차	<i>yujacha</i>
고추장	<i>gochujang</i>	불고기	<i>Bulgogi / bulgogi</i>	잡채	<i>japchae</i>
김밥	<i>Gimbap / gimbap</i>	비빔밥	<i>Bibimbap / bibimbap</i>	전	<i>Jeon</i>
김치	<i>kimchi / gimchi</i>	삼계탕	<i>samgyetang</i>	충무김밥	<i>Chungmu gimbap</i>
냉면	<i>naengmyeon</i>	송편	<i>Songpyeon / songpyeon</i>	파전	<i>pajeon</i>
다식	<i>dasik</i>	수정과	<i>sujeonggwa</i>	한과	<i>hangwa</i>
떡	<i>tteok</i>	식혜	<i>sikhye</i>	한라봉	<i>Hallabong</i>
떡갈비	<i>tteokgalbi</i>	어묵	<i>eomuk</i>	호떡	<i>hotteok</i>

음식이름 음소표기의 경우 ‘김치(kimchi/gimchi)’의 이(異) 표기를 제외하고는(§3.2.1. 참조) 모두 「표기법」을 준수하였다. 김성곤의 ‘kimchi’표기는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서 관례로 인정되는 표기이며, 이 관례를 「로마자표기법 용례사전」(국립국어원 2000)의 표기세칙에서도 관용표기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2.2.4에서 향후 개정 교과서의 한식명 표기 기준으

로 제안한 「길라잡이」에서도 ‘김치’를 ‘Kimchi’로 적고 있다. 그러므로 새 영어교과서에서 ‘김치’의 표기는 「길라잡이」에 따라,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굳혀진 표기법이 된 ‘Kimchi’로 통일되어 표기하여야 한다.

3.2.6.2. 음식명의 로마자표기 방식

위 표에서 보다시피 음식명의 표기방식에 있어서 교과서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1) *Gimbap* 방식, 첫 글자 대문자 처리와 이탤릭체 사용: 2종(민찬규, 배두분); (2) *gimbap* 방식, 첫 글자 소문자 처리와 이탤릭체 사용: 7종(권오량, 김임득, 김진완, 양현권, 이석재, 이재영, 정사열); (3) *Gimbap* 방식, 첫 글자 대문자 처리와 정자체 사용: 1종(박준언); (4) *gimbap* 방식, 첫 글자 소문자 처리와 정자체 사용: 3종(김성곤, 신정현, 이병민).

교과서별로 음식명 첫 글자의 대·소문자 및 이탤릭체 사용으로 인해 현재 교과서에 사용된 음식명 표기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대·소문자와 이탤릭체의 사용이 교과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소문자나 이탤릭체의 사용에 관한 어떤 일관된 기준이 없이 음식명이 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개정될 교과서의 음식명 표기는 §2.2.4에서 언급한대로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고유 한식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고 정자체로 표기한다. 둘째, 음식부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음식범주에 해당하는 말은 띄어 쓰되 필요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이에 따르면 ‘galbijjim’은 ‘Galbi-jjim’, ‘samgyetang’은 ‘Samgye-tang’, ‘tteokgalbi’는 ‘Tteok-galbi’, ‘tteokbokki’는 ‘Tteok-bokki’, ‘yujacha’는 ‘Yuja-cha’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음식범주명은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게 된다. 단, ‘Gimbap, Tteokguk, Pajeon, Japchae, Dasik, Songpyeon, Sikhye, Naengmyeon’ 등과 같은 2음절 한식명의 경우는 붙여 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Bibimbap, Sujeonggwa’ 등 음절수에 상관없이 음식 범주 명을 붙여 쓰고 있는 예들도 있으므로 표기상의 주의가 필요하겠다. 셋째, 음식명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문맥과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로마자표기와 함께 영어 번역을 덧붙여 표기할 수 있다(예: Yuja-cha, Citrus Tea). 단, 이때도 영어 번역을 「길라잡이」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음식명 표기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imbap, Kimchi, Bibimbap, Bulgogi 등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의미역이 불필요한 음식명이며 Deodeok, Omija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름이기 때문에 「길라잡이」에서도 의미역 없이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교과서에서도 영어번역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⁹⁾.

19) 심사위원 중 한분이 경주빵의 경우 Gyeongju Bread 대신 Gyeongju-ppang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다. 경주빵은 전부요소인 ‘경주’와 후부요소인 ‘빵’의 결합된 복합명사로 구분하여 Gyeongju Bread로 표기하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충무김밥의 경우도 같은 경우이지만, 김밥은 Gimbap으로 표기

3.2.7. 문화재 명칭 및 고유문화명 표기

3.2.7.1. 단일구성 문화재명 및 나라명 표기

건축물, 유적 및 명승문화재 및 나라명에 관련한 예는 다음과 같이 5종 교과서에 나온다: (1) 탑: Dabotap, Seokatap(권오량), (2) 사찰: Bulguksa(권오량, 신정현), (3) 궁궐: Gyeongbokgung(김진완, 신정현), (4) 건축물: Gangnyeongjeon, Geunjeongjeon, Gwanghwamun, Gyeonghoeru(양현권), Namdaemoon(김성곤), Jeonju Hyanggyo(신정현), (5) 기타 문화재: Seokguram, Cheomseongdae, Anapji(권오량), (6) 나라명: Joseon(권오량), Joseon Dynasty(김진완).

§2.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재명칭은 「기준 규칙」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위의 (1)~(5)는 모두 단일 구성 명칭²⁰⁾으로 이루어진 문화재명으로 제7조에 따라, 문화재명칭 전체 로마자표기에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의 표기는 ‘Dabotap Pagoda’, ‘Seokatap Pagoda’로 표기하여야 하며, (2) ‘불국사’는 ‘Bulguksa Temple’로, (3)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로 표기하여야 한다. (4)의 ‘Gangnyeongjeon, Geunjeongjeon’은 각각 ‘Gangnyeongjeon Hall’ 과 ‘Geunjeongjeon Hall’로, ‘Gwanghwamun’은 ‘Gwanghwamun Gate’로 ‘Gyeonghoeru’는 ‘Gyeonghoeru Pavilion’으로 표기하고, ‘Namdaemoon’의 경우 음소 표기의 오류를 수정하고(§3.2.1 참조) 속성번역을 덧붙여 ‘Namdaemun Gate’로 표기하여야 한다. (5) ‘Seokguram, Cheomseongdae, Anapji’의 경우 역시 후부요소의 의미역을 더하여 ‘Seokguram Grotto’, ‘Cheomseongdae Observatory’, ‘Anapji Pond’로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6) 나라명 표기에 있어서도 후부요소 의미역을 덧붙인 ‘Joseon Dynasty’의 표기가 일관성 있는 표기이다.

3.2.7.2.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명

지명을 포함한 문화재명은 Jeonju Hyanggyo(신정현)가 나타난다. 「기준 규칙」 제 20조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문화재) 표기 규정에 따르면 고유한 명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은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기준 규칙」 제 28조 (문화재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별표에 따르면 ‘향교’의 표기는 ‘Local Confucian School’로 되어 있다. 단,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다른 표기를 사

하기 때문에 Chungmu Gimbap으로 표기하여야한다.

20) 「기준 규칙」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문화재 명칭에 있어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조합된 문화재 명칭을 말한다.

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 향교’의 경우 ‘Jeonju Local Confucian School’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표기법이다. ‘Jeonju Hyanggyo’라는 표기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의미전달에 더 용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위해서는 「기준 규칙」에 부합하는 ‘Jeonju Local Confucian School’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2.7.3. 동물 문화제명 표기

동물 문화제 명칭의 경우 「기준 규칙」 제10조(동물 및 식물 문화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name)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하되 한국이 원산지인 경우 국문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박준언 1종에서 ‘진돗개’를 ‘Jindo dog’ 표기한 사례가 하나 있다. 따라서 원산지인 ‘진도’의 로마자표기에 영문 ‘dog’를 표기한 현재 표기 형태는 영문표기 명칭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 표기한다면 제10조에 부합하는 표기법인 것이다.

3.2.7.4. 서적명 표기

총 2종의 교과서에 옛 이야기, 서적의 제목이 나타난다. ‘*Heungbu and Nolbu*’, ‘*Janghwa and Hongryeon*’(박준언), ‘*Gyeonu and Jingnyeo*’(양현권)이 그 예이다. 문화제로 지정된 서적 일 경우 「기준 규칙」 제8조(서적 및 회화 문화제) ①에 따라 작품전체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인 경우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로마자 표기의 띄어쓰기는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흥부와 놀부’등이 문화재로 등재된 서적명은 아니지만, 굳이 이런 옛 이야기 제목의 표기 기준을 문화재 서적명과 달리 표기 할 이유를 찾기 힘들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게 여겨진다. 다만, 이탤릭체 사용에 대해 교과서간 통일성이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8조 ②에 따르면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학술 논문, 언론기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야기책인 경우는 ‘*Heungbu and Nolbu*’, ‘*Janghwa and Hongryeon*’, ‘*Gyeonu and Jingnyeo*’와 같이 이탤릭체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야기의 종류인 경우는 ‘*Heungbu and Nolbu*’, ‘*Gyeonu and Jingnyeo*’처럼 정자체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2.7.5. 무형문화제 및 고유문화명 표기

§2.2.3에서 제시했듯이 무형문화제 명칭은 「기준 규칙」 제9조(무형문화제) 표기 원칙에

따라 단일 구성 명칭일 경우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중 놀이, 공연, 무예 등에 관련된 표기는 (1) 놀이이름: *yunnori*, *jegichagi*, *tuho*(이석재, 이재영), *juldarigi*, *baduk*, *samullnori*, *ssireum*, *baduk*(정사열, *yunnori*(신정현), *Neolttwigi*(민찬규); (2) 전통 악기 및 공연 관련 명칭: *daegeum*, *talchum*, *gayageum*, *hahoetal*(이재영), *gugak*(이석재), *jing*, *kkwaenggwari*/*kkwaenggwari*(배두본), *pansori*(신정현); (3) 무예 명칭 및 고유문화에 관련된 기타 명사: *taekkyeon*(이재영), *taekwondo*(김임득, 김진완, 이석재, 이재영)/*taekwondo*(배두본)/*taegwondo*(민찬규)/*Taegwondo*(박준언), *bangpaeyeon*, *baekja*, *bokjumeoni*(이재영), *hanbok*(김진완, 이석재, 이재영)/*hanbok*(신정현, 양현권), *hanji*(이석재, 민찬규)/*hanji*(신정현)/*Hanji*(이병민), *hanok*(신정현, 이병민)/*hanok*(이석재), *cheoma*, *daecheong*, *norigae*, *hangeul*(이석재)가 있다.

(1)의 예들은 「표기법」의 음소표기 규칙을 모두 잘 지키고 있다. 표기방식에 있어서는 이석재, 이재영, 정사열은 이탤릭체 표기와 첫 글자 소문자 표기방식을, 신정현은 정자체 표기와 첫 글자 소문자 표기방식을 취했고, 민찬규는 이탤릭체 표기와 첫 글자 대문자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2)의 예에서도 음소표기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 표기방식에 있어서 이탤릭체 표기와 대·소문자 표기가 교과서별로 일관성 없이 사용되었다. 배두본에서는 심지어 팽과리 표기가 *kkwaenggwari*와 *kkwaenggwari*로, 징은 *jing*으로 표기되어 이탤릭체와 정자체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 교과서 내에서도 이탤릭체와 정자체가 번갈아가며 사용되는 양상은 학습자에게 표기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진다. (3)의 경우도 ‘태권도’를 제외하면 음소표기로는 동일한 표기 양식을 나타낸다. ‘태권도’의 경우 음소표기 면에서 「표기법」을 따른 표기인 ‘*taegwondo*’가 2종에서(민찬규, 박준원),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에서 인정한 ‘*taekwondo*’ 허용표기가 5종에서(김임득, 김진완, 배두본, 이석재, 이재영) 나타나고 있다. §3.2.1에서 언급하였듯이, 태권도, 김치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유명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통일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표기는 「표기법」의 음소표기 원칙에 따른 *Taegwondo*의 표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Taekwondo*로 표기하여야 한다.

분석한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및 고유문화명 표기 전체에 걸쳐 첫 글자 대문자 표기와 정자체 표기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 무형문화재 및 고유문화명의 표기는 「기준 규칙」 제5조(일반원칙) 6, 7항과 제9조(무형 문화재) 표기 규칙에 따라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며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예: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탤릭체를 사용하는 대신²¹⁾ 정자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1) 한세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쉬운 표기법’(양병선 2011: 부록 20) 제3장 제1항에 따르면 ‘외국어와 확연히 구별되도록 가능하면 빗쓰기(italic체 사용)를 채용한다’고 하여 로마자로 표기한 우리말 단어와 영어와 같은 외국어와의 구별을 하도록 제안한바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유명을 이탤릭체로 적는다면 책명을 이

4.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교과서 로마자 및 영문표기를 위한 제안

3장에서 분석한 현행 영어교과서의 로마자 및 영문표기의 실태를 요약하고 교과서의 잘못된 표기의 수정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올바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 로마자 및 영문표기를 위한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대체적으로 영어교과서에서 지명, 행정구역명 등의 음소표기 로마자표기는 현행 「표기법」에 따라 적고 있다. 교과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표기법」을 익히게 되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음소표기 로마자표기는 현행 「표기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김치와 태권도의 경우, 로마자표기의 원칙인 Gimchi, Taegwondo와 널리 알려진 Kimchi와 Taekwondo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자표기법 용례사전」에서도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굳어진 표기를 인정하여 Kimchi와 Taekwondo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도 Kimchi와 Taekwondo로 통일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반면 인명, 특히 성씨의 표기는 기준이 없어 영어교과서에 다양하게 적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성씨를 포함한 인명의 음절단위 로마자표기 표준안을 정하여야 하며(양병선 2002, 2009, 2010, 2011, 2014) 이에 따라 통일된 영어교과서의 인명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는 자신의 이름 소개를 3학년 첫 번째 과에서 다룬다는 점에서(양병선, 장숙현 준비 중) 인명에 대한 표기 규정을 초등학교 3학년 영어시간에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 섬, 폭포를 비롯한 자연지물명, 인공지물명 및 관광명소, 한식명, 문화재 명칭 및 고유문화명 등의 영문표기는 교과서마다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문체부 훈령 제279호인 「표기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명은 2014.10.17.에 제정된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인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표기는 이 규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한식명은 2014년 10월 한국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재단이 함께 발간한 「길라잡이」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영어교과서의 한국문화 관련 영문표기가 통일성 있게 표기되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한국문화의 세계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일부 교과서에서 한식명이나 무형문화재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문화 관련 영문표기 시 대·소문자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이들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규정 및 근거가 없으며 이 용어들은 관례적으로 이탤릭체가 적용되어오던 도서명도 아니다. 따

탤릭체로 적는 외국의 편집규정에 따라 책명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교과서에서 이탤릭체로 적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라서 이 용어들의 이탤릭체 표기는 정자체로 표기되어야 한다. 대·소문자의 표기도 일관성 있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즉 고유 한국문화용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문화용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문화 관련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에 대한 규정을 하루빨리 정하여 교과서 개발자 및 영어교사에게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인정교과서 평가 시 한국문화 용어 로마자표기 및 영문 표기에 관한 항목을 필히 넣어 한국문화 용어가 통일되게 검인정교과서에 표기되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통일된 영문표기를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7년 3월 초1~2학년울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이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표기법」과 「표기 지침」, 「기준 규칙」, 「길라잡이」와 같은 로마자표기 및 영문표기와 같은 규칙에 대한 교육이 영어교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초·중·고 영어교과서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²²⁾.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 12.1). 국립국어원. (2000). *로마자표기 용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김혜수. (2002). 초등학교의 로마자 인명 표기 교육에 대한 제언. *영어어문교육* 7(2), 129-145.
- 문화재청. (2014).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문화재청예규 제142호(2014.1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도로·관광 안내용어 번역 통일안. 2015. 6. 17.(수)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b). 공공 용어의 영어번역 및 표기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9호 (2015.12.29).
- 양병선. (2002). 성씨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인문과학연구*, 7, 157-195.
- 양병선. (2009). 제2차 '성씨 로마자표기 시안'에 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53, 293-317.
- 양병선. (2010). 한글 성씨 로마자표기 체계 비교·검토. *언어학*, 18(4), 199-218.
- 양병선. (2011). *영어철자와 발음기준 국어의 음절단위 영문로마자 표기법*. 서울: 한국문화사
- 양병선. (2014). 제3차 '성씨의 로마자표기 권장안'에 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81, 303-322.
- 양병선. (준비 중).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지침'에 대한 제언.
- 양병선·장숙현. (준비 중).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과 초등영어교과서 분석 및 제언.

22) 이를 위하여 본고의 후속연구로써 양병선·장숙현(준비 중), 추승희(준비 중)가 진행되고 있다.

- 양병선·추승희.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영어교과서 로마자 표기 실태 분석 및 제안. 2015 한국언어학회·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집. 97-107.
- 이재근. (2015). 2015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 3~4학년군 언어기능별 Text 수준. *초등교과교육연구*, 23, 105-112.
- 임찬빈. (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영어과 교육과정 (연구보고 CRC 2015-2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2015b).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영어과 교육과정(연구보고 CRC 2015-25-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경일. (2002). 영어교과서의 로마자표기양상: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영순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21세기 국어학의 현황과 과제*(491-515쪽). 서울: 월인. (정경일 2012: 157-180 재게재).
- 정경일. (2012). *국어 로마자표기의 오늘과 내일*. 서울: 역락.
- 추승희. (2015). 영어교과서 로마자 표기 실태 분석: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2015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
- 추승희. (준비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영어교과서 영문로마자 표기 실태 분석 및 제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관광공사·농림축산식품부·한식재단. (2014). *[200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200 International Korean Menu Guide*. 비매품.
-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소. (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연구결과보고서.
- 한혜정.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중·고등학교) 개발 연구(연구보고 CRC 2015-28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행정자치부. (2014). 도로명주소 로마자표기. 「도로명 주소업무편람」.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 행정자치부. (2015).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2015.9.15.).
- 홍원표.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 연구. 교육부 연구개발 보고서.

양병선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전화: 063-220-2213
이메일: bsyang@jj.ac.kr

추승희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TESOL전공
전화: 063-220-2213
이메일: chocoletto@hanmail.net

Received on June 27,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12, 2016

Accepted on September 30, 2016